

2019년 국가직 해설(나 책형)

1. 정답 ②

‘다른’의 의미가 ‘이것 말고 그밖의’의 의미이면 관형사이고 ‘차이가 있는’의 의미이면 형용사이다. 따라서 ‘다른’이 형용사로 쓰인 문장이다.

‘크다’가 ‘자라다’의 의미일 때는 동사이다. 따라서 ‘크지’가 동사로 쓰인 문장이다.

‘나다’는 동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허튼’은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아니다’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2. 정답 ①

①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② 주어진 논제는 긍정 평서문이 아니다.

③ ‘야만적인’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다.

④ 쟁점이 하나가 아니다.

3. 정답 ③

① ‘이곳은 황야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하늘은~변할 겁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만 있다. 아버지가 무대 위에 있는 인물은 아니다.

④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그림자로만 보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4. 정답 ④

① 수빈이는 정아가 한 말을 요약, 정리하여 재진술해 주고 있다. 이는 상대방 말에 집중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수빈이는 정아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정아가 프리젠테이션이 엉망이었다고 말하자 수빈이가 다시 자세히 말해 보라고 함으로써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④ 수빈이가 정아의 말을 요약, 정리, 재진술하고 있지만 수빈이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정답 ①

부역일->부역일(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부억닐(‘ㄴ’ 첨가, 사잇소리 현상-첨가)->부영닐(비음화-교체)

따라서 정답은 교체와 첨가이다.

6. 정답 ④

- ① 친숙한 상황에 빚댄 부분이 없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이 없다.
- ③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이 없다.
- ④ 반대 측 두 번째를 보면 '과연 누구까지~있을까요?'를 통해 알 수 있다.

7. 정답 ④

골게는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은 당위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양반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당위라면 무능한 양반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이다. 비록 현실이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라도 우리는 보통 당위를 지향한다. 하지만 골게는 이러한 당위를 부정하고 나타난 현실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골게는 다시 풍자적 골게와 해학적 골게로 나뉜다. 풍자적 골게는 골게 중에서 있어야 할 것 부정 즉 당위 부정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비판의 강도가 강하다. 반면 해학은 있는 것의 긍정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비판의 강도가 풍자에 비해 약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된다.

8. 정답 ①

- ㉠ 앞부분을 보면 뉴스의 타전은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고 했으므로 뉴스와 시간 규범을 언급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곳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④

- ① 개는 실제로 짖고 있는 동물이며, 대승도 내 한을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실재하는 존재물이다.
- ② 개를 화자의 부정적 심리와 연결할 수는 있지만 대승은 화자의 한을 돌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희망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 ③ 개와 대승 모두 내면이나 외면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와 대승 모두 화자 내면의 정서를 심화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 ④ '풍채 적은'이라는 근거를 통해 개는 화자의 초라함과 관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승은 '한을 돌우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하는 소재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②

화자의 상황을 보면 미인이 잠을 깨었고 아직 밝은 달이 뜬 봄날의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룬다’고 하며 잠 못 이루는 화자가 느끼는 봄밤의 외로움의 정서를 표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자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는 ‘전전불매(輾轉不寐)’이다.

① 금슬지락(琴瑟之樂): ‘거문고와 비파(琵琶)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부부(夫婦) 사이의 다정(多情)하고 화목(和睦)한 즐거움을 뜻한다.

③ 금의야행(錦衣夜行): 비단옷(緋緞-)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없는 행동(行動)을 비유(比喩·譬喩)하여 이르는 말’의 의미 또는 ‘입신(立身) 출세(出世)하여 고향(故鄉)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④ 맥수지탄(麥秀之嘆): ‘고국의 멸망(滅亡)을 탄식(歎息)함’의 의미이다.

11. 정답 ③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를 분석해 보면, (생략된 청자 ‘아주머니’ 설정 가능) 어머니께서(주어-주체) 아주머니께(부사어-객체) 이 김치를 드리(어휘적 높임-객체 높임)라고 하셨(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습니다(아주 높임 종결어미-상대 높임) 따라서 ③번은 주체, 상대, 객체 높임이 모두 쓰였다.

12. 정답 ②

① ‘넌라’, ‘하라’ 등 직절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② 마지막 연을 보면 ‘일만년 울타리’도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 넌라’라고 말하며 ‘일만년 울타리’를 버려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일만년 울타리’는 우리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시에서 ‘고전적인 것’ 또한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③ 이 시에서 ‘국경, 탑, 어용학’ 등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들은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반대로 2연에 보이는 ‘하늘을 흐르는 날새’, ‘바람, 햇빛’ 등의 자연적인 것들은 긍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④ ‘가래’라는 농기구를 통해 밀어 버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체제 개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정답 ③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서술자가 서술자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 ㉡, ㉢은 3인칭 서술자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 서술자가 아닌 등장인물인 ‘춘향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14. ④

- ① 방앗간에서 개를 때려잡는 장면이 표출됨으로써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 ② 새파란 불은 새끼를 뺨 신둥이가 살아서 도망가고는 하는 눈빛이므로 생의 욕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비록 짐승이지만 새끼 뺨 것을 죽일 수 없다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생명 존중 또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 ④ 간난이 할아버지가 신둥이를 도망가게 해 주자 사람들은 누가 개를 도망가게 해 주었냐며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들을 내뿜었다. 그때 그 말소리 속에 있던 인물이 동장네 절가이므로 동장네 절가 또한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장네 절가가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③

- ① (가)의 ‘상중에 있으면서~하고 꾸짖었다’를 통해 상층 남성들이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나)를 보면 하층의 인물인 전기수가 소설을 읽고 하층의 사람들이 전기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소설을 창작했다는 내용은 언급이 없다.
- ④ (가)가 상층이라면 (나)는 하층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6. ③

- ① 1문단 마지막 부분 ‘신보다 사람을 위한 음악~보여 준 것이다’, 2문단 처음 부분인 ‘또한 고전파 음악은~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 ③ 1문단을 보면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를 통해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아닌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는 것이 고전파 음악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 시작 부분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7. 정답 ①

- ① (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를 통해 실용적 기술 개발은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는 과학적 연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용적 기술 개발은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② (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를 통해 ‘일상 생활’도 실용적 기술 개발과 같이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를 통해 과학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앞부분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를 통해 감각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8. 정답 ④

- ① 1문단 앞부분 ‘젊은 청년들이~편리한 해결책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3문단 앞부분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3문단 앞부분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3문단 마지막 부분 ‘중국집으로 행하던~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를 통해 요즘 아이들은 자장면보다 피자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②

-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 ② ‘말미’와 ‘휴가’는 공존하며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말미’가 쓰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의미가 추가되며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단어이다.

20. ③

- ① 디디티(DDT) 즉 핵심 어휘를 제시하며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② 디디티(DDT)의 농축 과정과 그 후유증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디디티(DDT)의 악영향을 예를 들어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디디티(DDT)의 사용 금지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 ④ ‘경각심을 갖자’ 등의 직접적 표현이 아닌 상황 설명을 통해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